

생태 환경을 지켜내는 사람들 -1

실상사 도법스님 / 박남준 시인

아직 봄물이 오르는 중이라서 지리산의 봄은 일렀지만 실상사로 가는 길은 봄 준비를 서두르는 사람들의 바쁜 걸음걸이를 느낄 수 있었다. 실상사는 천년 고찰로서 이 땅의 불교에 새바람을 일으켰던 큰 절이었다. 풍수지리학적으로는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어 실상사가 흥하면 국운이 들고, 실상사가 허하면 국운이 쇠한다고 전해졌는데, 일제도 이를 알고 민족정기 말살 정책 중 하나인 쇠말뚝을 박는 등, 훼손에 앞장섰다. 다른 절과는 다르게 이 절은 평지에 자리를 틀고 있으며 수많은 국보급 문화재들이 대단히 왕성했던 옛날의 위세를 짐작하게 한다.

2002년도 불교종단 분규가 심화되었을 때 조계종단개혁을 주도했던 도법스님은 이 절을 지키면서 박남준시인, 이원규 시인 등과 교류하며 지리산의 자연을 온전하게 보존하려는 사업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그가 지리산을 지키는 것은 '불교의 현실참여적 실천'의 하나라고 단정한다. 지리산은 사람들의 이용편익을 좇다보니 캠프장이 들어서고, 댐이 들어서고, 케이블카 설치가 논의 되는 등 자연훼손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작은 힘으로나마 지리산 사수에 팔 걷고 나섰다.

"국립공원론 만으로는 지리산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산에서 등산의 시작은 여러곳이지만 결국 모든 길은 정상으로 향하는데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훼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산행 형태를 정상 정부형이라고 하는데 꼭 정상만이 최고도 아니고, 정상 을 올라야만 그 산을 다 안다는 것 보다 오르는 과정인 숲과 숲길의 참 가치를 되돌아 보자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리산길' 이 생겼다. 사람들을 지리산이 자연스럽게

품어 낼 수 있는 '합리적인 숲길' 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도법스님은 이 숲길의 이사장을 맡아 본격적으로 지리산의 길 치유에 들어갔다. 그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지리산 살리기 국민운동, 지리산 생명연대, 지리산생명평화결사 등을 거쳤다. 2004년 생명평화탁발순례시 섬진강 벚꽃길 4차선화 시도에 맞서 순례를 중단하고 당시 이창동 장관 등을 만나 '지리산 순례길' 을 제안했다. 길을 걸으면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걸을 길이 없다. 많은 국민과 노력의 결과 결국 2007년 산림청으로부터 녹색기금의 지원을 받아내기에 이른다.

"세상에 대한 배신감으로 지리산에 들었으니, 세상사람들을 만날 일이 별로 없었지요. 그런데 누구도 못한 위로와 사랑을 나무, 새, 풀꽃들에게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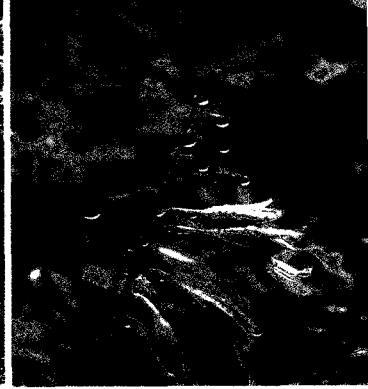
박남준 시인은 용기 있는 시로 주목 받았던 박남준 시인. 2003년 9월 지리산에 불어오는 바람은 도법스님과 여러 가지 공통점을 안고 지리산 살리기에 힘을 보탤다.

2007년 2월, <지리산생명연대>의 부설법인으로 분을 연 사단법인 <숲길>은 오래된 옛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던 옛길의 흔적을 되살려 우리 땅의 생태와 문화, 역사를 보전하는 활동을 한다고 했다.

첫 활동으로 어머니의 산, 지리산 둘레를 잇는 지리산길을 만들어 간다.

지리산길은 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 자연과 마을 역사와 문화의 의미를 다시 찾아내, 잇고 보듬는 길이다. 이는 나아가 지리산과 한반도, 그곳에 깃들여 사는 온 생명이 더불어 살아가는 활동이다.

지리산 둘레 옛길을 찾아 한 땀 한 땀 수놓듯 이어가는



숲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숲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우리 할머니가 예쁜 가마 타고 시집갑니다.
저 고개 넘으면 우리 학교가 보입니다.
숲길을 따라 걸으면
아직도 그 재잘거림이 들립니다.

숲길은 이 마을과 저 마을을 이어 줍니다.
숲길은 어제와 내일을 이어 줍니다.
숲길은 고층아파트의 창백함과
자연의 푸르름을 이어 줍니다.

숲길은 하나됨입니다.

숲길은 우리 숲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가치를 찾을 것입니다.
숲길과 더불어 지속할 수 있는
지역의 발전모습을 마련할 것입니다.
숲길로 이어지는 역사의 가르침에 마음 모으고
숲길 위로 묻어나는 문화의 향기를 음미하며
영원한 생태적 삶을 지향할 것입니다.

숲길에 희망이 있습니다.

지리산길 300km는 빠른 속도의 문화를 느림의 문화로,
수직의 문화를 수평의 문화로, 집착의 문화를 관조의 문화
로 되돌리려는 이 시대의 소망을 안고 있다.

〈숲길〉은 지리산길을 통해 소외된 지역의 마을에 활기
를 불어넣고, 지리산이 가져다 주는 생명과 평화의 메시지를 백
두대간을 따라 한반도로 전할 것입니다.

수백년을 살고도 그루터기로 남아 남은 뭍을 다하는 거
목처럼 남다른 예술과 나눔이 몸에 베인 듯한 두분의 말씀
들을 안고 돌아오는 궂길로 다 못 들은 아쉬움이 소근거리
는 듯 했다.